무등리그 파죽지세·함평드레곤스·센프랜즈·상무스타치과 4강행

광일리그, 파트너스·킹가이즈·그린라인·무안어니언스
14번째 '무등기 왕좌' 차지 위한 사회인야구팀 4강 확정
20일 무등리그·광일리그 준결승전…27일 결승전 개최

13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함평드레곤스와 뉴욕야시장의 경기에서 3회말 1사 1루에서 뉴욕야시장의 박선율이 도루를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4번째 무등기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광주·전남 사회인야구팀의 격돌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지난 12일 함평야구장에서 개막했다.

리그별로 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2일 광일리그 8강전, 13일 무등리그 8강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광일리그에서는 파트너스, 킹가이즈, 그린라인, 무안어니언스가 4강을 확정했다. 무등리그에서는 에어패스 파죽지세, 함평드레곤스, 버서커 센프랜즈, 상무스타치과가 4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12일 파트너스와 빛고을페리토스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렸고, 파트너스가 대회 첫승을 기록했다.

파트너스는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선발 최용희의 활약으로 페리토스를 8-0, 5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타석에서는 김대원의 활약이 빛났다. 김대원은 4회 1사 만루에서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하면서 4타점을 수확했다.

킹가이즈는 고서행운떡집 슬러거에 7-4, 6회 시간제한승을 따냈다.

1번 타자 최동민이 1안타 2볼넷 3도루 2득점을 기록했고, 2번 조나현은 2루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3타점을 올렸다. 선발 전상욱은 4이닝 1실점의 활약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어진 그린라인과 송원 블루제이스의 경기에서는 그린라인이 9-1, 5회 콜드승을 거뒀다.

1회부터 4점을 뽑아낸 그린라인은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선발 조진훈의 활약으로 콜드승을 기록했다. 조진훈은 8개의 탈삼진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광일리그 8강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안어니언스가 영광샤크스를 상대로 7-1승을 올렸다. 1-1로 맞선 3회초 어니언스가 대거 4점을 뽑으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선발 강승필이 5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5번 타자로 나선 조준택이 2안타 2타점 1득점의 활약을 선보였다.

이어 13일 같은 장소에서 무등리그 8강전이 진행됐다.

에어패스 파죽지세는 석산고동문회의 기권으로 4강에 직행했다.

이어 함평드레곤스가 뉴욕야시장을 상대로 11-7, 5회 시간제한승을 거뒀다.

1회부터 3점을 뽑은 드레곤스는 2회와 3회에도 각각 3점씩을 만들면서 뜨거운 화력을 보여줬다.

정욱진이 4.2이닝 6탈삼진의 승리투수가 됐고, 2번 타자 박성진이 2안타 3득점으로 활약했다. 뉴욕 야시장은 5회 4점을 뽑아내면서 반격했지만 초반 싸움에서 밀려 승리를 내줬다.

버서커 센프렌즈는 한사랑병원에 4-1, 5회 시간제한승을 거뒀다.

선발 양하성이 6이닝 1실점(비자책점) 7탈삼진 완투승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의 MVP가 됐다. 한사랑병원은 양하성의 호투에 막혀 2안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센프렌즈 추정민은 5회 솔로포를 기록하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무등리그 준결승 마지막 티켓은 상무스타치과의 차지가 됐다.

상무스타치과는 파이터스와의 8강전에서 13-5 대승을 장식했다.

1회 4점을 뽑은 상무스타치과는 2회 대거 9득점에서 성공하면서 일찍 승기를 가져왔다.

남준성이 선발로 나와 초반 싸움을 이끌었고, 마운드를 물려받은 김대현이 3이닝 2실점(비자책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20일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준결승전이 치러지며, 27일 결승전을 통해 무등기 주인공이 가려진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무등기 1주차 전적

◇광일리그 8강전(12일)

◆1경기 〈5회 콜드승〉

빛고을 페리토스	00000-0
파트너스	10241-8

▲승리투수 : 최용희 ▲홈런 : 김대원 (4회 1사 만루 그라운드 홈런·파트너즈)

◆2경기

킹가이즈	101311-7
슬러거	010030-4

▲승리투수 : 전상욱

◆3경기 〈5회 콜드승〉

블루제이스	00100-1
그린라인	40023-9

▲승리투수 : 조진훈

무안어니언스	1040101-7
영광샤크스	0100000-1

▲승리투수 : 강승필

◇무등리그 8강전(13일)

◆1경기 〈기권승〉

석산고동문회	0000000-0
에어패스파죽지세	1111111-7

◆2경기 〈5회 시간 제한승〉

함평드레곤즈	33302-11
뉴욕야시장	01024- 7

▲승리투수 : 정욱진

◆3경기 〈5회 시간 제한승〉

한사랑병원	00010-1
버서커센프렌즈	10021-4

▲승리투수 : 양하성 ▲홈런 : 추정민(5회 1점 홈런·센프렌즈)

◆4경기 〈5회 시간 제한승〉

상무스타치과	49000-13
파이터스	12020- 5

▲승리투수 : 남준성

"우리도 한국시리즈 뛰고 싶어요"

KIA 김규성·김두현·박정우 등 '30인 엔트리' 부푼 꿈

'두근두근'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KIA 타이거즈는 정규시즌 우승팀 자격으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얻어냈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국시리즈에 맞춰 KIA는 지난 4일부터 35명의 선수단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4일부터는 합숙훈련에 나서 본격적인 '포스트시즌 체제'에 들어간다.

여기에 13일부터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대결이 시작되면서 '가을잔치'를 앞둔 KIA의 긴장감은 더 커졌다.

35명의 선수 중 한국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선수는 30명, 간절함으로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내야수 김규성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9월 27일 한화 원정에서 수비 도중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상을 당해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아쉬운 시즌 마무리였지만 김규성은 '역대급 공방전'으로 꼽힌 지난 8월 31일 삼성 원정에서 1루수로 나서 집중력 있는 수비로 승리에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김규성은 "기회가 왔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연습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느낌이 든다"며 "누구나 야구선수라면 한국시리즈를 뛰고 싶어 한다. 좋은 기회이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아프더라도 참고 해야 한다. 이빨로 막고 몸으로 막아서라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규성은 또 "큰 무대에서 홈스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홈을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한다. 지금도 그 장면을 찾아본다. 팀 승리에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극적인 순간을 그렸다.

훈련 선수단에 '깜짝' 합류한 루키 김두현은 "솔직히 예상 못 했는데 이렇게 훈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박찬호 선배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 끝까지 훈련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외야에서는 박정우가 '무념무상'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큰 경기에서 수비가 중요한 만큼 김호령의 역할이 기대됐지만 복사근 부상을 당해 한국시리즈 출전이 어렵게 됐다. 그만큼 빠른 발과 강한 어깨로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박정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는 9월 30일 NC와의 시즌 최종전에서는 프로 첫 3안타를 기록, 타석에서도 눈길을 끌었었다.

박정우는 "우승팀 일원으로 훈련하면서 한국시리즈를 준비한다는 게 영광스럽다. 꼭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 한국시리즈 생각이 간절하다. 온몸을 다해서 얼굴에 공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경기를 뛸 준비는 됐다"면서도 "간절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훈련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연습경기에서 내 장점을 어필하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가지고 있는 게 워낙 좋은 선수다. 긴장만 안 하면 된다"며 '주장' 나성범이 기대를 한 투수 김도현도 간절함을 가지고 한국시리즈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김도현은 "똑같이 시즌 하는 것처럼 잘 준비하고 있다. 느낌은 좋다. 아직 한국시리즈 실감은 안 난다. 엔트리에 내 이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그때 실감이 날 것 같다"며 "팀 분위기는 너무 좋다. 감독님, 코치님께서 쉴 때 쉬고, 훈련할 때 훈련하게 하는 분위기다. 거리낌 없이 분위기라서 좋다. 꼭 엔트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차포' 잃은 홍명보호 이라크 넘을까

내일 북중미 월드컵 亞 3차 예선
손흥민 이어 황희찬도 부상 이탈

1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대표팀 주장 김민재(가운데)가 요르단 모하마드 아부하시시에 앞서 헤더로 공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차포'를 잃은 홍명보호가 북중미행의 최대 고비를 '2연승'으로 넘을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

팔레스타인과의 홈 1차전에서 0-0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여정을 시작한 홍명보호는 오만과의 원정 2차전에서 3-1로 승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3차전에서 2-0 쾌승을 거두며 B조 1위(승점 7·골 득실 +4)로 뛰어올랐다.

현재 조 2위(승점 7·골 득실 +2) 이라크를 상대로도 이긴다면 북중미행의 '5부 능선'을 넘고 보다 수월하게 남은 6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함께 B조의 강자로 꼽히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한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북중미행의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다.

유럽파 주축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한 상태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간다면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던 홍 감독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될 터다.

다만, 홍명보호에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황희찬(울버햄프턴)도 요르단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소집 해제됐다.

게다가 요르단전에서 황희찬 대신 투입된 엄지성(스완지시티)마저도 경기 중 무릎을 다쳐 중도 하차했다.

요르단전에서 맹활약한 오현규(헹크),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어린 공격수들과 대체 발탁된 이승우, 문선민(이상 전북)이 빈자리를 젤 메워줘야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라크(55위)는 B조 6개국 중 한국(23위) 다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서아시아의 강호다.

지난해 걸프컵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이라크, 베트남, 필리핀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다. 올 초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는 일본을 2-1로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를 지낸 헤수스 카사스(스페인) 감독이 2022년 지휘봉을 잡은 뒤로 완연한 상승세를 보여온 이라크다.

카사스 감독은 이번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홍명보호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189㎝ 장신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이 꼽힌다.

후세인은 A매치 77경기 28골을 기록 중이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16강전까지 4경기에서 5골이나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을 펼쳤다.

골 결정력에 몸싸움 능력을 겸비한 만큼 김민재(뮌헨), 조유민(샤르자) 등 한국 수비진이 후세인을 얼마나 잘 봉쇄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최근 2연승을 포함, 통산 9승 12무(승부차기 2패 포함) 2패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으로 패한 건 1984년 4월 치러진 LA올림픽 최종예선 맞대결(0-1)로, 40년 전 일이다.

/연합뉴스

쾅!쾅!쾅! 삼성 홈런으로 기선 제압

플레이오프 1차전 LG에 10-4 승…홈런 3개 등 선발 전원 안타

2024 KBO POST SEASON 신한 SOL Bank

'사자 군단'이 화끈한 방망이로 플레이오프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이하 PO) 1차전에서 3개의 홈런 포함 장단 14안타로 선발 전원 안타를 장식하면서 10-4 승리를 거뒀다.

정규시즌 2위로 PO에 직행한 삼성은 3회 나온 구자욱의 3점포를 시작으로 4회 김영웅의 솔로홈런, 5회 르윈 디아즈의 투런포로 LG 마운드를 흔들었다.

경기 초반부터 올 시즌 '홈런 1위팀'의 위력을 과시한 삼성은 5회말 선발전원 안타도 완성했다. 역대 PO 5번째이자, 포스트 시즌 18번째 기록이다.

LG 오지환은 4회 삼성 선발 데니 레예스를 상대로 솔로포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삼성 레예스는 오지환에게 '한 방'은 허용했지만 6.2이닝 4피안타 3실점(1자책점)의 호투로 승리를 낚았다.

LG 선발 최원태는 3이닝 7피안타 5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LG의 9번째이자 마지막 투수로 나온 김대한은 2개의 폭투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화력을 선보인 삼성은 14일 오후 6시 30분 열리는 PO 2차전에서 '토종 에이스' 원태인을 앞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LG는 외국인 투수 디트릭 엔스로 선발 싸움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